

# 중세국어 조사 ‘-드려’, ‘-더브리’, ‘-이/스손디’의 문법

장요한\*

|| 차례 ||

1. 서론
2. 조사 ‘-드려’, ‘-더브리’, ‘-이/스손디’의 분포와 기능
3. ‘-드려’, ‘-더브리’, ‘-이/스손디’의 통사적 특성
4. ‘-드려’, ‘-더브리’, ‘-이/스손디’의 처격 표시 체계
5.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중세국어 ‘-드려’, ‘-더브리’, ‘-이/스손디’가 처격 성분에 통합하여 나타나는 처격 조사임을 밝히고, 나아가 ‘-드려’, ‘-더브리’, ‘-이/스손디’가 통합한 선행 체언과 후행 서술어의 특성을 검토하여 그 쓰임을 분명히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고는 ‘-드려’, ‘-더브리’, ‘-이/스손디’가 ‘-에게’ 정도로 해석되는 자리에 나타나며, ‘-드려’와 ‘-더브리’의 경우에는 ‘말하다’류 서술어에만 통합하여 나타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세 형태가 통합하는 체언이 [+사랍]인 특성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드려’, ‘-더브리’, ‘-이/스손디’를 처격 조사로 판단하고, 아울러 중세국어 처격 조사 체계를 형태 구성과 통사 구성으로 구분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중세국어, 처격 조사, 여격 조사, 문법화, 형태 구성, 통사 구성

---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Post-Doc.

## 1. 서론

본고는 중세국어에 문헌 자료에서 확인되는 조사 ‘-드려’, ‘-더브리’, ‘-이/스손디’의 형태·통사적 특성을 검토하여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법적 성격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드려’, ‘-더브리’, ‘-이/스손디’의 쓰임을 확인한 다음에, 각각의 통사적 특성을 검토할 것이다.

‘-드려’와 ‘-더브리’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주로 수여의 대상이 되는 명사, 이른바 처격어(혹은 여격어)에 통합하여 나타난 사실은 기왕의 연구에서 드러난 바 있다.<sup>1)</sup> 그런데 사실 수여의 대상이 되는 명사에는 ‘-이계’ 내지 ‘-스기’가 통합하여 나타나는 것이 ‘-드려’나 ‘-더브리’가 통합하는 것보다 일반적이다.<sup>2)</sup> 아래 예를 살펴보자.

1) 종래에 수여의 대상이 되는 명사에 통합하는 조사와 이동 방향이나 도착점이 되는 명사에 통합하는 조사를 구구분하여 각각 여격 조사와 처(소)격 조사로 처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익섭·임홍빈(1983)에서는 처격 조사의 ‘-에’와 여격 조사의 ‘-에게’가 의미적으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음을 지적하고 이를 아울러 처격조사로 처리한 바 있다. 이 분류는 이남순(1998)에서도 이어진다. 한편, 안병희·이광호(1990)에서는 처격조사를 하위 분류하여 다시 처격표시의 조사와 여격표시의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본고는 잠정적으로 안병희·이광호(1990)의 분류를 따라 크게는 처격조사로 처리하되 이를 다시 처소격 범주와 여격 범주로 하위분류하고자 한다. 이는 ‘-에’와 ‘-에게’가 의미적으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에’와 ‘-더러’ 혹은 ‘-이’와 ‘-드려’의 경우는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 ‘-이계’, ‘-스기’는 ‘-이/스거기’, ‘-이/스그에’ 등으로도 나타나는데 이 형식이 속격 ‘-이/스’과 의존 명사가 통합한 구성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계’, ‘-스기’ 등을 조사의 목록에서 제외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승욱(2007)은 ‘-이/스 그어기’ 구성과 ‘-으/스 거기/그에/게/기’ 구성, ‘-이계, -께’ 구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한 바 있다. 즉 ‘-이/스 그어기’를 문법화 이전 단계인 구 구성으로, ‘-으/스 거기/그에/게/기’를 문법화 중간적 과정의 모습으로, 이른바 ‘중간적 문법 단위’로 처리한 것이다. 마지막 ‘-이계’, ‘-께’를 문법화의 결과 단계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아울러 ‘-이/스그어기’의 문법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된 동기를 이 구성이 여격 상당의 기능을 부담하면서부터라고 기술한 바 있다. 만약 이 논의가 맞다면 중세국어 ‘-이/스그어기’계를 모두 분석 가능한 구 구성으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 (1) 가. 大王이 法을 세사 比丘들히게 옷 바블 주디 문게 ㅎ쇼셔<月釋 22:71a>  
 나. 부테 文殊大衆의게 니르사디 이 諸佛力 不可思議니 오직 부터와 부터왜사 能히 알리니<月釋25:46a>  
 다. 내 아래부터 부텃기 이런 마를 몬 들즈뵈며 四衆들토 다 疑心 ㅎ느니 世尊하 ㅍ야 니르쇼셔 <釋詳13:42b>  
 라. ㅎ 臣下 | 王의 슬보디 太子 | 저머 겨시니 ㄴ 뒤 기르스뵈려뇨<釋詳3:3a>

위 (1)는 각각 ‘주-’, ‘니르-’, ‘듣-’, ‘숯-’ 동사의 처격어에 ‘-이게’, ‘-스기’가 통합하여 ‘-에게’ 정도로 해석되는 경우이다. 위 경우에서와 같이 ‘-이게’, ‘-스기’는 보통 처격어에 통합하여 선행 체언의 문법적 관계를 분명히 하는데, 이때 이 처격 표시가 생략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 처격어 자리에 반드시 ‘-이게’, ‘-스기’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드려’, ‘-더브러’, ‘-이/스손디’가 대신하여 나타나기도 한다. 다음 예를 살펴보자.

- (2) 가. 내 다시 너드려 묻노니 네 니르라<牧牛子19b>  
 나. 須達이 舍利弗더브러 무로더 世尊이 ㅎ르 몇 리를 녀시느니잇고 對答호디<釋詳6:23a>  
 다. 益利를 묻져 보내야 어미손디 닐오디 어마니미 善事를 ㅎ시단디면 내 이 도날 가져가 어마니물 供養 ㅎ습고 ㅎ다가 모딘 業을 지스시단디면 내 이 도노로 어마님 爲 ㅎ야 布施호리이다 ㅎ야늘<月釋 23:73b>

(2 가)는 ‘내가 다시 너에게 묻는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2 나)는 ‘須

---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논점 외의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이게’, ‘-스기’ 등을 처격 표시 정도로 표기하여 일단 형태 구성과는 거리를 두어 기술하도록 하겠다.

達이 舍利弗에게 묻는데'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 (2 다)도 '어머니에게'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 모두 '-에게' 정도로 해석되며 '-에게' 내지 '-스기'로 대체할 수 있는 자리에 나타난 언어 형식이다.

그런데 선행 연구의 조사 분류를 보면 (1)의 '-에게', '-스기' 정도만 처격 표지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1)의 '-에게', '-스기'와 (2)의 '-드려', '-이/스손디'를 처격 표지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 '-드려'와 '-더브러'의 경우는 대체로 보조사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더브러'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sup>3)</sup> 그러나 '-드려', '-더브러'의 분포가 상당히 제약되어 있으면서 '-에게', '-스기'와 분포 환경이 유사한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편, '-이/스손디'의 경우는 처격어 성분에만 통합하면서 '손디'가 단독으로 쓰이는 구성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성 과정에 입각하여 통사 구성으로 보는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중세국어 시기에 형식 명사 '손디'가 단독으로 쓰이거나 일정한 의미를 가진 예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에게', '-스기'와는 다르게 처리하여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처격 성분에만 통합하여 나타나는 '-드려', '-더브러'와 '-이/스손디'의 분포 환경 및 그 기능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고는 이 '-드려'와 '-더브러', '-이/스손디'의 어형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 어형이 처격 관계를 표시하는 형태임을 확인하고, 이어서 이 '-드려', '-더브러', '-이/스손디'가 통합한 구성의 특성, 즉 선행 체언의 의미 자질과 후행 서술어의 제약 등을 검토하여 그 쓰임을 분명히 제시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드려', '-더브러', '-이/스손디'가 문법화한 형식으로 처

3) '-드려', '-더브러', '-이/스손디'의 경우 선행 연구에 따라서 그 문법적 지위가 다르게 분류되었다. 이 세 어형 모두 후치사로 처리한 경우가 있는데 이기문(1972), 이승녕(1981), 서종학(1983)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는 다르게 이승욱(1973), 안병희·이광호(1990)에서는 '-드려'와 '-스손디'를 처격 표지로 분류하였다. 한편, 하귀녀(2005)에서는 '-드려'를 보조사 목록에서 제외하고 처격 조사로 처리한 바 있으며 '-이/스손디'의 경우는 구 구성으로 처리하여 이 어형도 보조사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격 조사 범주를 이루고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며, 이 형태들이 ‘-이게’, ‘-스귀’, ‘-으/스손터’와 한 범주를 이루고는 있지만 구성 면에서 차이가 있음도 밝혀지게 될 것이다.

## 2. 조사 ‘-드려’, ‘-더브러’, ‘-이/스손터’의 분포와 기능

2.1. 먼저 ‘-드려’의 쓰임을 확인해 보자. ‘-드려’가 동사 ‘드리-’(率, 與)의 활용형 ‘드려’가 문법화를 거쳐 형성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우선 활용형 ‘드려’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아래 (3)은 ‘-을 드려’ 구성의 경우이고 (3′)는 선행 조사 ‘-을/를’이 생략된 ‘드려’ 구성의 경우이다.

- (3) 가. 長者 | 듣고 세홀 드려 드리오라 햐야 뜰헤 안치습고 묻즈보다<月釋8:94b>  
 나. 妃子 | 즉재 禮數 햐고 세 願을 求호디 햐나흔 婆羅門이 내 두 아기를 드려 만나라해 도라가 풀에 햐쇼셔<月釋20:85b>  
 다. 暮春에 鴛鴦 | 몫ᄃᆞᆫ 셋느니 샓기를 드려 두위터 느라 햐 퍼기에 도로오느다<杜詩10:18b>
- (3′) 가. 부테 쑤 難陁 드려 忉利天上에 가샤 天宮을 구경케 햐시니<月釋7:11a>  
 나. 그 王스 두 아드리 四萬二千 사람 드려 햐흔 부터피 모다 가 머리 조삿바 禮數 햐습고 부터피 세닐 값도습고 햐넉 面에 물러 잇더니<釋詳21:41b>  
 다. 王이 드르시고 ᄃ장 놀라샤 즉재 婆羅門이 아기 드려 드리오라 햐시고 王과 夫人과 臣下들과 大闍入 각시들히 두 아기를 버라고 모글 메여 햐더니<月釋20:87a>  
 라. 라. 阿育王이 그저기 臣下들 드려 雞雀精舍에 가 上座耶舍의 날 오디<釋詳24:32b>

위 (3, 3')의 활용형 '드려'는 '드리-'에 접속어미 '-어'가 통합한 구성으로 현대국어의 '데리고' 정도의 의미로 해석된다. 이때 '드리-'는 '누가 누구(를) 드리-' 구성을 취하는 동사로 목적격 조사 '-을/를'을 지배하는 타동사이다. 그런데 이 시기에 활용형 '드려'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활용형 '데리고'와 경쟁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활용형 '데리고'가 “왕이 한 사람 드리고 와 보더니” <釋詳24:16b>처럼 '드려'가 나타날 자리에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드려'는 후에 '드려오-'(>데러오다), '드려가-'(>데러가다) 정도의 구성에서만 확인된다. 반면 '데리고'는 그 분포를 점차 확대하여 위 (3, 3')과 같은 자리에도 나타나게 되는 변화 과정을 겪는다.<sup>4)</sup>

이러한 활용형 '드려'와 '데리고'의 통시적 변화는 '-드려'의 문법화 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즉, '드려' 구성이 통사 구성에서 형태 구성으로 변화를 겪게 되면서 '데리고'만을 활용형으로 인식하게 되어 활용형 '드려'는 점차 그 사용이 줄어들어 몇 복합어 구성에만 남게 된 것이다. 물론 '-드려'의 문법화는 그 자체의 쓰임에서 보다 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즉 활용형 '드려'가 '말하다'류의 동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에 '여격'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게 되면서 활용형 '드려'가 점차 문법 형태 '-드려'로 변화를 겪게 된 것이다.<sup>5)</sup> 이 사실과 함께 활용형 '데리고'가 영향을 준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드려'처럼 용언의 어간에 접속어미 '-어'가 통합한 구성의 문법화는 비단 '드려' 구성만은 아니고 '브터', '더브러', '비르서' 등에서도 확인된다.

그럼 문법화를 거쳐 형성된 조사 '-드려'의 예를 살펴보자.

4) 현대국어에서 '데러오다', '데러가다'의 경우에 분석의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데려'의 활용형이 다른 곳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배주채(2009)에서는 어휘소 (lexeme) 차원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5) 익명의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도움을 주심.

- (4) 가. 須達이 護彌드려 무로디 主人이 므슴 차바닐 손소 들녀 밍그노닛  
 가 太子를 請흐스바 이받즈보려 호노닛가 大臣을 請흐야 이바도  
 려 호노닛가<釋詳6:16a>
- 나. 後에 부테 羅雲이드려 니르사디 부터 맛나미 어려보며 法 드로미  
 어려보니 네 이제 사르미 모물 得호고 부터를 맛나 잇느니 엇데  
 게을어 法을 아니 듣는다<釋詳6:10b>
- 다. 그 솔드려 무로디 그뵈 아바니미 잇느닛가<釋詳6:14b>
- 라. 모든 道 비홀 사름드려 알외노니 힘째 모디 用意호고 大乘門에  
 도르혀 生死智를 잡디 말라<육조下57b-8>

(4 가)는 ‘須達이 護彌에게 묻되(묻기를)’ 정도로 해석되고, (4 나)도 ‘후에 부처가 羅雲이에게 말씀하시되(말씀하시기를)’ 정도로 해석된다. (4 다, 라)도 마찬가지로 ‘-드려가 -에게’ 정도로 쓰여 서술어의 처격어에 통합하여 나타난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이때 ‘-드려’는 문법 형태로서 선행 체언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해 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조사로 쓰이는 ‘-드려’는 활용형 ‘드려’와 몇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먼저는 “그 夫人이 ㄹㄹ니 사르물 브려 나랏 內에 王ㅅ 病 곤흔 사르물 어더 그 사르물 드려다가 비를 빠보니” <釋詳24:50a>처럼 활용형 ‘드려’가 동일 명사 삭제 현상에 의해서 선행하는 목적어 체언이 생략되는데 반하여 조사로 쓰인 ‘-드려’는 결코 앞의 성분인 체언이 생략된 채 나타나는 일이 없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이 네 弟子들히 五百 比丘을 드려 이리 안자 ㄹㄹ라 가니” <月釋7:21b>처럼 활용형 ‘드려’가 선행 목적어 체언과 ‘드려’ 사이에 다른 형태가 끼어드는 일이 있지만 조사 ‘-드려’는 “羅雲이드려” <釋詳6:10b>처럼 소위 이름 접미사 외에 선행 체언과의 사이에 어떤 형태도 끼어드는 일이 없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후행 서술어와의 호응 관계이다. 활용형 ‘드려’도 접속형이기 때문에 후행 서술어가 뒤따르게 된다. 이때 ‘드려’는 “阿育王이 그저기 臣下들 드려 雞雀精舍에 가”

<釋詳24:32b>처럼 후행하는 서술어에 대체로 ‘가-’와 ‘오-’처럼 이동 동사가 나타난다. 하지만 조사 ‘-드려’는 후행 서술어 ‘말하다’류와만 호응 관계를 이룬다. 이 점 또한 두 어형의 차이점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사 ‘-드려’는 문장에서 생략해도 문장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만약 서술어로 기능하는 ‘드려’라면 생략했을 경우에 문장 성립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활용형 ‘드려’와 구분되는 조사 ‘-드려’의 분포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sup>6)</sup>

그런데 조사 ‘-드려’를 일정한 의미를 덧붙이는 보조사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드려’의 통사·의미적 특성상 단순히 보조사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우선 ‘-드려’가 ‘말하다’류 서술어와만 호응 관계를 이룬다는 점이다. 만약 보조사라면 이런 통합의 제약이 없거나 덜할 것으로 예측되나 ‘-드려’는 매우 제약된 분포를 보인다. 두 번째는 ‘-드려’가 사용된 자리를 ‘-이게’로 교체하였을 때 ‘NP드려’와 ‘NP이게’가 의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보조사는 일정한 의미를 선행 체언에 부가하기 때문에 보조사를 생략하거나 다른 조사와 대체했을 때 의미 차이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NP드려’와 ‘NP이게’ 사이에는 큰 의미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드려’를 생략해도 ‘-드려’가 통합했을 때와 별다른 의미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본고는 활용형 ‘드려’와 조사 ‘-드려’를 구분하고 다시 이 조사 ‘-드려’를 처격 성분에 통합하여 선행 체언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처격 조사로 간주하고자 한다.<sup>7)</sup>

6) 보조사의 판별 기준은 박미영(2007) 참고.

7) 국어 조사 분류는 최현배(1937/1971) 이후로 계속해서 논의되어 온 분야로 흔히 격 조사와 보조사가 구분되어 논의되어 왔다. 최근 이정훈(2004), 임동훈(2004), 황화상(2004) 등에서 조사의 분류와 통합 순서가 정밀하게 논의된 바 있다. 특히 임동훈(2004)에서 격 조사와 보조사의 차이를 관계 의미를 표시하느냐 어떤 개체를 한정하여 표시하느냐의 차이로 기술한 관점은 전통 문법 이래로 이어지는 생각으로 판단된다. 박미영(2007)에서는 보조사의 식별 기준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는데, 일정한 의미를

한편, 표면적으로는 구 구성을 취하는 듯하나 기능적으로는 형태 구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을/를 드려’가 확인된다. 즉 조사로 해석되는 ‘드려’가 목적격 조사 ‘-을/를’을 취하고 있어 설명이 요구되는 경우가 확인된다. 아래 예를 살펴보자.

- (5) 가. 婆羅門을드려 닐오더 어디사 도흔 쓰리 양즈 ㄱ즈니 잇거노 내  
 아기 위햐야 어더보고려 <釋詳6:13b>  
 나. 반드기 놀드려 무르며 누 能히 對答 ㅎ려노<法華1:66a>  
 다. 아래 제 버디 주겨 하늘해 갯다가 느려와 須達일드려 닐오더 須達  
 이 님웃디 말라<釋詳6:19b>  
 라. 아래 阿闍世王이 迦葉尊者의 期約호더 尊者 | 入滅 ㅎ실 저기 모  
 로매 날드려 니르쇼셔 ㅎ엿더니<釋詳24:6a>

위 (5 가)는 ‘婆羅門에게 말하되(말하기를)’ 정도로 해석되고, (5 나)는 ‘반드시 누구에게 물으며’ 정도로, (5 다)는 ‘須達이에게 말하되(말하기를)’ 정도로, (5 라)는 ‘나에게 말하십시오’ 정도로 해석된다. 즉 위 (5)는 표면적으로는 ‘을/를 드려’ 구성으로 구 구성을 취하고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서술어의 처격어에 붙어 ‘-에게’ 정도로 해석되는 경우이다.<sup>8)</sup>

---

덧붙여 주거나 통합 분포가 다양하거나 명사구의 문법 기능과 관련 없이 통합 가능할 때에야 보조사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받아들이면 격조사는 의미를 덧붙여주는 것과는 상관없으면서 분포가 제약되고, 명사구의 문법 기능과 관련되는 조사일 것이다. 최근 논의에서는 처격 조사를 격조사와 구분하여 의미격 조사로 처리하곤 한다. 문법적 관계만 표시하는 조사와 달리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임동훈(2004)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관계 의미를 표시한다는 점에서는 보조사와 구분된다. 한편, 보조사의 특성에 대한 논의는 서종학(1983), 채완(1977), 짐진영(1995), 하귀녀(2005) 등 공시·통시를 막론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상태이다.

8) 홍윤표(1986/2002)에서 근대국어 시기에 확인되는 ‘-로드려’ 구성을 검토한 바 있다. ‘-로드려’ 구성을 중세국어 ‘-을/를 드려’와 관련된 것으로 보면서 ‘-와’ 정도의 공동격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이 ‘-로드려’는 17세기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사용된 형태적 구성인 것이다.

이처럼 해석되는 ‘-을/를드려’도 항상 ‘말하다’류에서만 나타나며 선행 체언이 문맥상 처격어인 점은 조사 ‘-드려’와 동일한 분포 환경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이 또한 형태 구성으로서 처격 기능을 담당하는 형식으로 보고자 한다. 이 ‘-을/를드려’는 표면적으로는 구 구성을 취하지만 기능적으로는 형태 구성으로 파악되는 일종의 문법화의 중간 단계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즉, ‘[[[N] 을/를] [드려]]<sub>S</sub>’ 구성이 ‘[[N] [[을/를] [드려]]]<sub>NP</sub>’으로 변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보이는 현상으로 변화의 시작 단계와 최종 단계의 사이에 나타나는 중간적 단계의 모습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중간적 단위에 대해서는 최근 이승욱(2007)에서 다룬 바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N + N’ 구성에서 확인되는 ‘-인/스 그어귀’, ‘-인/스 거귀/그에/게’, ‘-인/스게’를 통해서 문법의 중간적 단위를 설명하였고 이의 동기를 두 어절 구성의 우연적 표현이던 통사구조가 한 어절 구성의 형태론적 구성을 지향하고 일어난 연속적 변이라고 기술하였다. 이 논의에 따르면 위 (5)에서 관찰되는 ‘-을/를드려’도 통사구조가 한 어절 구성의 형태론적 구성을 지향하고 일어난 변화로 파악할 수 있겠다.

이상에서 본고는 활용형 ‘드려’와 이와 구분되는 조사 ‘-드려’를 확인하였고, 표면적으로는 통사 구성을 보이지만 기능적으로는 형태 구성으로 파악되는 ‘-을/를드려’를 문법 단계의 중간적 단위로 처리하였다. 이처럼 언어 변화의 모든 과정이 동 시기에 확인된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으로 살펴볼 ‘-더브러’에서도 확인된다.

2.2. 다음으로 ‘더브러’를 살펴보자. 먼저 아래는 활용형 ‘더브러’의 예이다.

- (6) 가. 耶輸 | 그 기별 드르시고 羅睺羅 더브러 노푼 樓 우희 오르시고  
門돌홀 다 구디 줌겨뒸터시니<釋詳6:2b>

- 나. 열 히를 蹠蹠호매 샷기 더브러 머리 왓노니<杜詩11:15a>  
 다. 善友太子 | 바라래 아니 가 大闕에 이실 찌기 혼 힌 그러기를 추  
 디 長常 더브러 든니더니<月釋22:61a>  
 라. 나는 난 後로 놉 더브러 드토들 아니호노이다<釋詳11:34b>  
 마. 머리 萬餘 리에 나를 더브러 三軍에 가는다<杜詩5:27b>  
 바. 弟子들 보내시고 衣鉢을 디니샤 阿難이를 더브러 가시니<월천  
 69a>

위 (6)은 ‘더브러’가 활용형으로 쓰인 경우로 ‘둘 이상의 사람이 함께하  
 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된다. 이때 활용형 ‘더브러’는 ‘-을/를’, ‘-로’ 등을  
 지배하는데 생략되기도 한다.

그런데 ‘더브러’도 문법화를 거쳐 조사로 사용되는 예가 확인된다. 아래  
 예를 살펴보자.

- (7) 가. 須達이 舍利弗더브러 무로디 世尊이 호르 몇 리를 녀시느니잇고  
 <釋詳6:23a>  
 나. 멀터본 현 띠 무든 옷 닙고 드틀 모매 무티고 올흔 소내 쏙 출  
 그릇 잡고 양지 두리본 일 잇는 드시 호야 일 호는 사롬들더브러  
 널오디 너희 브즈러니 호야 게으르디 말라 호야<月釋13:22a>  
 다. 그 띠 世尊이 또 比丘衆드러 니르사디 내 이제 너더브러 니르노니  
 <月釋13:67b>  
 라. 므스물 슬허서 늘근 사롬더브러 무루물 츄마 호디 몬호노니<杜詩  
 3:62b>  
 마. 黃閣엿 늘근 사롬더브러 일마다 무르면 엿데 白登에 뿌리요물 헤  
 아리리오<杜詩24:49b>  
 바. 부테 羅刹女들더브러 니르사디 도타 도타<釋詳21:31b>

(7 가)는 ‘須達이 舍利弗에게 묻되(묻기를)’ 정도로 해석되고, (7 나)는

‘일하는 사람에게 말하되(말하기를)’ 정도로, (7 다)는 ‘내가 이제 너에게 말하노니’ 정도로, (7 라)는 ‘늙은 사람에게 묻기를’, (7 마)는 ‘黃閣에 있는 늙은 사람에게 일마다 물으면’ 정도로 해석된다.

조사 ‘-더브리’가 가지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 앞서 언급한 ‘-드려’와 같이 조사 ‘-더브리’도 선행 체언이 생략되는 일이 없다. 또한 목적격 조사 ‘-을/를’을 취하지도 않는다. 활용형 ‘더브리’로 쓰였다면 목적격 조사가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었겠으나 문법화를 거쳐 형성된 조사 ‘-더브리’는 더 이상 조사 ‘-을/를’을 요구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선행 체언과 ‘-더브리’ 사이에 어떤 다른 형태도 끼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더브리’를 생략해도 문장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점이다. 만약 ‘-더브리’가 서술어로 쓰였다면 서술어 ‘더브리’를 생략했을 경우 그 문장의 성립은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 (7)의 예들은 ‘-더브리’를 생략해도 전체적인 문장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네 번째는 ‘-더브리’가 주로 ‘말하다’류 동사의 처격어에 통합한다는 사실이다. ‘-더브리’가 가지는 분포의 제약이라 할 수 있다. 서술어 ‘더브리’는 ‘오다’나 ‘가다’, ‘듣다’ 등 주로 이동 동사와 어울려 쓰이는데 조사 ‘-더브리’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위 (7)에서 쓰인 ‘-더브리’는 조사로서 쓰인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선행 연구에서 조사 ‘-더브리’를 보조사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고는 앞서 언급한 ‘말하다’류에만 나타나는 분포의 제약과 조사 ‘-더브리’를 통합했을 때와 생략했을 때에 의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점, 그리고 ‘-더브리’를 ‘-드려’와 ‘-이게’로 교체해도 두 구성 간에 의미 차이가 보이지 않은 점을 들어 ‘-더브리’를 처격 조사로 다루고자 한다. 물론 ‘더블-’의 의미가 ‘-더브리’에 남아 있어 선행 체언에 ‘함께 하다’ 정도의 의미가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말하다’류에 나타난 ‘-더브리’는 ‘함께 하다’보다 수여의 대상에 대한 문법 관계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해석된다. 따라서 의미적으로도 ‘-더브리’는 처격 조사로 처리하는 것이 온당하리

라 판단된다.

한편, 조사 '-더브러'도 '-드려'처럼 목적격 조사 '-을/를'을 수반하는 구성이 확인된다. 하지만 이때도 그 기능은 조사로 파악된다.<sup>9)</sup>

(8) 가. 이웃 지비 고기와 자래와 보내야셔 날더브러 즈조 能히 올다 문는다<杜詩10:14b>

나. 놀더브러 무려사 흐리며 뉘사 能히 對答 흐려뇨 흐시고<釋詳13:15a>

(8 가)는 '나에게 자주 능히 오느냐고 묻는다' 정도로 해석되고 (8 나)는 '누구에게 물어야 할 것이며' 정도로 해석된다. 즉, 이때 '-더브러'가 '-을/를'을 수반하고 나타났지만 '-에게' 정도로 해석되는 형태 구성으로 파악된다. 이 경우도 앞서 언급한 '-을/를드려'와 같이 문법화 과정 중에 보이는 중간적 문법 단위로서 [[N][[을/를][더브러]]NP]와 같은 구성을 취한다 하겠다. 이 변화 과정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시작 단계>                      <중간 단계>                      <최종 단계>  
[[N][을/를] [더브러]]<sub>S</sub> -> [[N][[을/를][더브러]]]<sub>NP</sub> -> [[N][더브러]]<sub>NP</sub>

위의 과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사 구성에서 형태 구성으로 변화를 가지는 문법화는 중간적 단계를 가지게 된다. '-을/를더브러'가 이 중간적 단계를 보여주는 현상으로 파악된다. 표면적으로는 구 구성을 취하고 있는 듯하지만 기능적으로는 형태 단위의 의미 기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sup>10)</sup>

9) 홍윤표(1986/2002)에 따르면 '더브러'도 근대국어 시기에 '드려'의 경우처럼 '-로더브러' 구성이 확인되는데 이때 '-로더브러'도 '-로드려'와 같이 '-와' 정도의 공동격 기능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였다.

10) '-을/를 드려/더브러'의 통사 구성이 '-을/를드려'나 '-을/를더브러'의 중간 단계를 거쳐 '-을/를'이 탈락되어 형성된 '-드려', '-더브러'는 비단 이 구성에서만 확인되는

본고에서 살펴보는 ‘-드러’, ‘-더브러’, ‘-이/스손디’가 공교롭게도 모두 이러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보다 흥미롭게 생각된다.

이상에서 조사로 쓰이는 ‘-더브러’를 확인하였다. 또한 활용형 ‘더브러’가 조사로 문법화를 거치면서 나타나는 중간 단위의 ‘-을/를더브러’도 확인하였다.

2.3.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손디’를 확인해 보자. 아래 예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다.

- (9) 가. 민나라해 도라와 제 지블 즘게 남즈기 두고 잣 西스녀 버드나모  
미티 쉬더니 益利를 몬져 보내야 어미손디 닐오디<月釋23:73b>  
나. 善友太子스 어마니미 그 그러기손디 가샤 니르사디<月釋22:61a>  
다. 阿彌陀佛이 比丘들과 券屬이 圍繞호스바 金色光을 퍼샤 그 사르  
미손디 오샤 苦空無常無我를 너퍼 니르시고<月釋8:55b>  
라. 尊者ㅣ 만히 주근 鉢얍과 주근 가히와 주근 사롬과 세 가짓 주거므  
로 花鬘을 밍그라 魔王이손디 가져 니거늘<月釋4:21a>  
마. 妃 道人스손디 무로디 이에 理 비환디 몇 히잇고 <月釋20:74a>

위 (9)는 처격어 정도에 해당되는 체언에 ‘-이/스손디’가 통합한 경우로, (9 가)는 ‘어미에게 말하되’ 정도로 해석되고, (9 나)는 ‘善友太子의 어머니가 기러기에게 말하되’로 해석되며, (9 다, 라, 마, 바, 사) 모두 ‘-에게’ 정도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스손디’가 속격 ‘-이/스’의 교체 환경과 동일한 분포 환경을 보이므로 이 구성을 속격 ‘-이/스’과 ‘손디’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 구성이 기원적으로 속격과 ‘-이/스’과 ‘손디’가 통합하여 형성된 것임을 주지의 사실이다.

---

것은 아니다. 가령 ‘-을 브터’ 통사 구성도 ‘-을/를브터’를 거쳐 ‘-브터’가 되어 나타나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 통합한 구성이 아무런 실질적 의미를 가지지 않고, 그 분포 환경도 위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격어에만 통합하여 나타나는 점은 과연 ‘-이/스손디’를 ‘-이/스 + 손디’로 분석하여 ‘손디’를 형식 명사로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품게 한다. 무엇보다도 이와 유사한 환경을 보이는 ‘-이계’, ‘-스귀’의 경우는 ‘계’, ‘-그에’ 등이 지시 대명사로서 단독으로 쓰이는 예가 확인되고 관형 구성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확인된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으로, 즉 통사 구성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겠지만<sup>11)</sup> ‘손디’가 지시 대명사 내지 형식 명사로 쓰이는 예가 중세국어에서는 확인된 바가 없고 ‘손디’가 장소의 ‘곳’, 시간의 ‘동안’ 등의 경우처럼 일정한 의미를 갖고 나타난 예도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이/스손디’의 ‘-이/스’와 ‘손디’를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하나의 언어 단위로 처리하는 것이 온당하리라 본다. 이에 본고는 ‘-이/스손디’에서 ‘-이’와 ‘-스’이 속격조사의 그것처럼 교체한다고 해서 ‘손디’를 분석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언어 현실을 중시하여 ‘-이/스손디’를 일종의 융합형 내지 통합형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즉, 기원적으로 형식명사이었던 ‘손디’가 그 기능의 약화로 인하여 앞의 형태와 굳어져 형성된 융합형으로 볼 수 있겠다. 다만 ‘-이/스’이 속격의 그것과 동일한 교체를 보인다는 점과 속격적 형태로 해석되는 ‘ㅣ’(“長者ㅣ손디 닐어늘” <月釋 8:98b>)와 ‘ㄱ’(“阿闍世王 ㄱ손디 가니” <釋詳 24:6a>)와도 결합한다는 점에서 융합형으로 처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sup>12)</sup> 하지만 이 또한 이승욱

11) 하귀녀(2005)에서 의존 명사 ‘계’와 ‘그에’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를 제시하며 ‘-이계’, ‘-스귀’를 분석 가능한 구성으로 본 바 있다.

12) ‘-이/스손디’에서 ‘-이/스’의 교체가 속격의 교체와 동일하다는 이유 때문에 ‘-이/스손디’를 분석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어에는 두 형태가 통합하여 하나의 언어 단위를 이룰 때에 구성 요소인 한 형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교체 양상을 보이는 예는 이미 구성에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스손디’의 분포 환경무시하고 그 구성요소의 교체 양상만을 중시하여 분석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특히 역사적 연구에서 언어 단위의 확인은 분포 환경과 통시적 변화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007)에서 언급한 ‘어휘·문법의 중간 단위’(완전한 문법화를 이루지 않은 단계에서 보이는 불완전한 통합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혹은 ‘-익’과 ‘-스’의 교체 현상이 엄격히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융합형의 구성원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교체를 따르는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이 경우에 ‘-익/스’ 없이 ‘-손디’만 나타난 경우가 확인된다. 이는 ‘-드려’와 ‘-올/룰드려’, ‘-더브러’와 ‘-올/룰더브러’의 관계와 유사한 모습이라 하겠다.

(10) 가. 外道 | ..... 王손디 혼뻘 가 外道 | 닐오디 沙門釋子 | 놀카본  
갈할 가져 王을 害호려 ㅎ노이다 ㅎ고<月釋25:23a>

나. 내 成道 後로 상네 이 오솔 니버 값간도 損失티 아니ㅎ야 이제  
悉達손디 付囑 ㅎ노니<月釋25:43a>

위 (10 가)는 ‘外道가 왕에게 함께 가서 (왕에게) 말하되’ 정도로 해석되고, (10 나)는 ‘내가 ..... 이제 悉達에게 말기노니’ 정도로 해석된다. 이때 ‘-손디’ 또한 선행 체언이 가지는 문법적 관계를 분명히 하는 데에 사용된 하나의 언어 단위로 파악된다. 이는 마치 중간적 문법 단위로 파악되는 ‘-올/룰드려’, ‘-올/룰더브러’가 문법화의 최종 단계인 ‘-드려’와 ‘-더브러’로 변화를 경험한 것처럼 ‘-익/스손디’에서 ‘-익/스’이 탈락하여 ‘-손디’로 나타난 문법화의 최종 단계의 모습이 아닌가 한다. 이 시기에 속격 조사 ‘-익/스’은 생략되지 않고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때 ‘-익/스’이 생략된 ‘손디’가 체언에 통합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검토한 내용을 정리하면, ‘-드려’와 ‘-더브러’, ‘-익/스손디’ 모두 처격 성분에 통합하여 현대국어의 ‘-에게’ 정도로 해석되는 처격 조사로 확인된다. 특히 ‘-드려’나 ‘-더브러’가 ‘말하다’류의 구문에 한정하여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적 현상이다. 또한 이 장에서 확인한 중요한 ‘-드려’나 ‘-

더브러’, ‘-이/스손디’ 모두 통사 구성에서 형태 구성으로 변화한 형식으로 처격 표지의 기능을 담당하는 점과 ‘-드려’와 ‘-더브러’는 문법화의 최종 단계로서 그 중간 단계의 ‘-올/롤드려’, ‘-올/롤더브러’가 확인되는 점, ‘-이/스손디’의 경우는 문법화의 중간 단계로 보이며 선행 조사가 생략된 ‘-손디’가 확인된다는 점이다. 그럼 다음 장에서 이 형태들에 대한 통사적 특성을 살피고 이어서 이 형태들의 상호 관계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 3. ‘-드려’, ‘-더브러’, ‘-이/스손디’의 통사적 특성

3.1. 유정체 처격어에 통합하는 대표적 형식인 ‘-이게’, ‘-스기’는 선행 체언이나 후행 서술어에 제약 없이 통합하여 나타난다. 그러나 ‘-드려’나 ‘-더브러’의 경우는 선행 체언의 의미 자질과 후행 서술어에 따라서 제약적 분포를 보인다. 이에 본 장에서는 이들의 분포 환경을 면밀하게 살펴 통사적 특성을 밝히기로 하겠다.

그럼, 먼저 ‘-드려’가 통합하는 선행 체언의 의미자질부터 살펴보기로 하겠다. 중세국어 조사의 특성으로 볼 때 처격 조사나 속격 조사의 경우에 선행 체언의 유정성과 존칭성은 중요한 분포 환경이 될 수 있다. 이들에 의해서 교체를 달리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처격어에 통합하여 나타나는 조사 ‘-드려’의 경우도 선행 체언의 정보는 중요한 문법적 특성이 될 수 있다. 아래 (11)의 예를 살펴보자.

- (11) 가. 부테 目連이드려 니르샤디 네 迦毗羅國에 가아 아바넝긔와 아즈  
 마넝긔와 아자바넝내띠 다 安否 訶습고<釋詳6:1a>  
 나. 어마니미 아들드려 널오디 네 아바니미 外道를 信訶야 婆羅門사  
 법에 기피 詰탁訶야 겨시니 너희들히 아바넝긔 가 술바 뵈셔 訶訶  
 가샤 訶리라<釋詳21:36a>

- 다. 부테 阿難이와 大衆들드려 니르사디 나 涅槃흔 後에 天上이며 人間이며 一切衆生이 내 舍利를 어더 슬흐며 깃거 恭敬하야 절하야<釋詳23:6a>
- 라. 須達이 護彌드려 무로디 主人이 므슴 차바닐 손소 들녀 밍그노닛 가 太子를 請하스바 이받즈보려 호노닛가 大臣을 請하야 이바도려 호노닛가<釋詳6:16a>
- 마. 王이 臣下들드려 무르사디 길흘 조케 하라 하다니<釋詳3:18a>
- 바. 더 王이 그 사롭드려 무러 지순 罪며 福이며 헤여 공스하리니<釋詳9:30b>

위 (11)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드려’가 통합하는 선행 체언이 [+사람]이라는 것과 처격어가 주어보다 높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드려’는 처격어가 사람이면서 주어에 대해서 비존칭일 때 선행 체언에 통합하여 나타난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 예를 살펴보자.

- (12) 가. 王이 大愛道드려 니르사<釋詳3:3b>  
 가’. 耶輸이 손지 듣디 아니하시고 大愛道의 솔보사디<釋詳6:7a>  
 나. 그 ㅼ 부테 舍利弗드려 니르사디<釋詳13:46b>  
 나’. 須達이 舍利弗의 가 꾸러 닐오디 大德하 사르미 다 모다 잇느니 오쇼셔<釋詳6:29b>

위 (12가, 가’)은 ‘大愛道’에 ‘-드려’와 ‘-스기’가 각각 결합한 구성이고, (11나, 나’)은 ‘舍利弗’에 ‘-드려’와 ‘-스기’가 각각 통합한 구성이다. 즉 동일한 인물이지만 문맥적으로 처격어인 ‘大愛道’와 ‘舍利弗’이 존칭의 대상으로 해석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드려’와 ‘-스기’가 분포를 달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드려’가 비존칭의 사람 명사에 통합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드려’가 통합하는 선행 체언의 특성과 관련해서 현대국어 직관으

로 볼 때 어색한 경우가 있다. 아래 예를 살펴보자.

- (13) 가. 王이 니르샤더 네 엇테 날드려 아니 니른다<月釋20:67b>  
 나. 엇테 제 알며 제 보디 못호고 날드려 보며 보디 못호물 무르리오  
 흐신대<육조下28a-1>  
 다. 아래 阿闍世王이 迦葉尊者의 期約호디 尊者 | 入滅호실 저기 모  
 로매 날드려 니르쇼셔 흐엿더니<釋詳24:6a>  
 라. 比丘들하 내 이제 너드려 니르노라 더 佛弟子十六沙彌 이제 다  
 阿耨多羅三藐三菩提를 得호야 十方 國土에 現在호야 說法호디  
 無量 百千萬億 菩薩 聲聞이 眷屬이 드외야 잇느니라<月釋  
 14:49a>  
 마. 如來 | 오늬나래 眞實호 말로 너드려 날오리니 모든 智慧 잇느닌  
 모로매 가줄보므로 아로물 得호리라<楞嚴1:99a>

위 (13 가, 나, 다)는 ‘-드려’가 1인칭 대명사 ‘나’에 통합한 경우이고, (13 라, 마)는 2인칭 대명사 ‘너’에 통합한 경우이다. ‘-드려’는 후대에 ‘-더러’로 그 음상의 변화를 경험하는데 이를 가지고 볼 때 위 예들은 아주 어색하다. 이 구성에는 ‘-에게’나 ‘-한테’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 시기에 위 (13)의 경우처럼 1인칭이나 2인칭에 ‘-드려’가 통합하는 것은 예외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말하다’류 서술어의 경우에는 처격어가 1인칭이거나 2인칭일 때 ‘-에게’보다 ‘-드려’가 더 많이 사용되는 듯하다. 필자가 관찰한 바로는 1인칭 혹은 2인칭 처격어에 ‘-에게’가 통합하는 경우는 아래 정도의 구문에서 확인된다.

- (14) 가. 太子 | 화를 혀시니 화리 것거디거늘 무르샤더 내그에 마즌 화리  
 잇느니여<釋詳3:13b>  
 나. 내그에 모덜언마론 제 님금 爲타 호실씩 罪를 니저 다시 브려시니  
 <龍歌121>

다. 宿王華아 이 藥王菩薩入 本事品으로 네그에 付屬 호노니<釋詳 20:30a>

위 (14 가)는 ‘나에게 맞은 활이 있느냐?’ 정도로 해석되고 (14 나)는 ‘나에게 모질지언정’ 정도로 해석되고 (14 다)는 ‘너에게 부탁하노니’ 정도로 해석되는 경우로 1인칭 ‘내’와 2인칭 ‘네’에 ‘-그에’가 통합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말하다’류 구문에서 ‘-그에’가 1인칭 내지 2인칭 처격어에 통합한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실은 ‘-드려’가 ‘-에게’와 보이는 분포의 차이로 ‘-드려’의 분포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상으로 검토한 선행 체언에 대한 ‘-드려’의 통합 환경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5) 선행 체언에 대한 ‘-드려’의 통합 환경

- 가. 선행 체언이 처격어이고,
- 나. 선행 체언의 의미 자질이 [+사람, -존칭]일 경우에 통합한다.
- 다. 선행 체언의 인칭과 관련 없이 통합하여 나타난다.

다음으로 ‘-드려’의 후행 서술어와 관련하여 문장 구성을 살펴보자. ‘-드려’가 주로 ‘니르-’나 ‘묻-’ 등과 같은 화법동사와 통합하여 위 (11)의 예들 처럼 ‘NP이 NP드려 닐오디(니르샤디)/니르노니 S’ 혹은 ‘NP이 NP드려 무로디(무르샤디)/묻노니 S’ 정도로 나타나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바 있다.<sup>13)</sup> 그런데 (11)에서와 같이 ‘-오디’나 ‘-(으)니’에 의해 접속된 접속문이 아니라 ‘드려’ 다음에 인용절이 나타나는 경우도 확인된다.

(16) 가. 부테 纒 알피 가샤 阿難이드려 [尼師檀 실라] 호야시놀<月釋 7:39a>

13) 이현희(1994) 참고.

- 나. 그디 沙門弟子드려 [어루 것굴따] 무러 보라<釋詳6:26b>  
 다. 아비 ..... 아드리 어려비 너기는 돌 아라 아드린 고돌 스의 아로디  
 方便으로 늑드려 [이 내 아드리라] 니르디 아니코<月釋13:19a>  
 라. 이우집 張叔의 가시 丁蘭의 겨집드려 [보아지라] 햏야늘<三綱런  
 던孝10>

위 (16)은 인용절이 모문절 안에 삽입된 구성으로 서술어는 ‘니르-’나 ‘묻-’가 나타나거나 대동사 ‘햏-’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때 ‘-드려’는 상위 서술어 ‘햏야시늘’, ‘무러보라’, ‘니르디 아니코’, ‘햏야늘’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위 (16)은 ‘NP이 NP드려 S 니르-/묻-’ 정도의 문장 구성을 취한 경우이다.

다음은 드물지만 ‘-드려’가 사용되는 구성이기에 제시한 경우로 ‘NP드려 니르다/묻다 S’ 구성으로 나타나는 예이다.

- (17) 가. 文殊아 내 이제 너드려 묻노라 너 文殊 곧햏야 다시 文殊 | 이  
 文殊 | 라 호니 잇느녀 文殊 | 업스녀<楞嚴2:58a>  
 나. 阿難아 내 이제 너드려 묻노라 이 劫波羅入 巾이 여섯 미요미 現  
 前햏니 햏햏 미요물 그르면 햏햏 더로물 得햏려 묻햏려<楞嚴  
 5:26b>  
 다. 比丘들하 내 이제 너드려 니르노라 더 佛弟子十六沙彌 이제 다  
 阿耨多羅三藐三菩提를 得햏야 十方 國土에 現在햏야 說法호디  
 無量 百千萬億 菩薩 聲聞이 券屬이 드외야 잇느니라 <月釋  
 14:49a>

위 (17)은 이현희(1994)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S 묻-’ 형식의 구문에서 ‘묻-’이 앞으로 전치된 구문이다. 이때 (17)이 (16)과 ‘NP이 NP드려 닐오디(니르샤디)/니르노니 S’ 혹은 ‘NP이 NP드려 무로디(무르샤디)/묻노니 S’ 문장 구성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인용절을 취하고 있다는 점

에서 공통된다. 즉 의미 해석상 서술어 ‘니르-’, ‘묻-’의 보문으로 실현된 구성인 것이다. 이러한 점은 화법 동사의 특징이면서 동시에 ‘-드려’가 나타나는 분포 환경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아래는 ‘니르-/묻-’의 언급 대상이 명사절과 관형사절로 나타난 경우이다.

(18) 가. 옛데 제 알며 제 보디 묻호고 날드려 [보며 보디 묻호믈] 무르리오  
 호신대<육조下28a-1>

나. 하늘홀 비취며 싸홀 비취여 萬像을 머구므니 [다울 업슨 이 마술]  
놀드려 니르리오<金三2:45a>

(18 가)는 ‘NP드려 V호믈 묻-’ 구성으로 ‘NP’가 명사절 구성으로 나타난 경우이며 (18 나)는 ‘NP를 NP드려 니르-’ 구성으로 ‘NP’가 관형사절에 수식을 받는 구성으로 나타난 경우이다. 이처럼 ‘-드려’가 내포절을 취하는 구성에 사용되는 분포는 현대국어의 ‘-더러’의 분포와 아주 유사하다.

아래는 목적어인 내포절이 생략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이다.

(19) 가. 아래 阿闍世王이 迦葉尊者의 期約호디 尊者 | 入滅호실 저기 모  
 로매 날드려 니르쇼셔 호엿더니<釋詳24:6a>

나. 내 이제 四衆을 法에 渴望호야 울월에 호리라 호시고 四衆드려  
 아니 니르시고 호오사 불 구피라 펼 쓰시에 勿利天에 가사<月釋  
 21:4a>

위 (19)는 ‘NP드려 니르’ 구성으로 ‘니르-’의 목적어인 내포절이 확인되지 않지만 문맥상 (19 가)는 ‘尊者가 入滅한 사실’ 정도의 내포절이 생략된 것으로 보이고 (19 나)는 ‘四衆이 法을 渴望하여 우러르게 하겠다는 사실’ 정도의 내포절이 생략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드려'가 나타난 구문이 대체로 목적어가 절로 실현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닌 듯하다. 아래 예를 살펴보자.

- (20) 가. 祖 | 홀른 能을 보고 니르사타 ..... 모딘 사르미 이셔 너를 害홀가  
 저허 너드려 [말] 아니 호노니 아는다 모르는다<육조上25b-7>  
 나. [이 부텃 光明 神通相]을 이제 받드기 놀드려 무르려노 호더니<法  
 華1:66b>

위 (20 가)는 'NP드려 NP 아니 호-/묻-' 구성으로 여기에서 'NP'는 명사인 '말'이 실현되고, (20 나)는 명사구인 '이 부텃 光明 神通相'이 실현되었다. 이는 앞서 검토한 구성과는 차이를 보이는 경우이다. (20 가)는 명사 '말'이 처격어 자리에 왔고, (20 나)는 속격 구성의 명사구가 처격어 자리에 온 경우이다. 이는 일반적인 '-드려'의 쓰임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구성이지만 '말'이나 '이 부텃 光明 神通相' 모두 표면적인 해석보다는 구체적인 명제를 담고 있는 문장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의미적으로는 앞서 검토한 예들과 유사하다 하겠다.

이상에서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드려'의 통사적 특성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21) '-드려'의 통사적 특성

- 가. 선행 체언이 [+사람, -존칭]인 경우에 한하여  
 나. '니르-', '묻-' 등의 '말하다'류가 쓰인 처격어에 통합하되<sup>14)</sup>  
 다. 선행 체언의 인칭에는 크게 제약을 보이지 않는다.

14) '-드려'가 '니르-', '묻-' 외에 '알외-' 구문에 쓰이는 경우가 확인된다. "모든 道 비홀 사람드려 알외노니 힘빠 모디 用意호고 大乘門에 도르혀 生死智를 잡디 말라"<육조 下57b-8>처럼 '알외-'(알리다)가 서술어인 구성에 '-드려'가 쓰인 예가 있다. 그러나 그 예도 적을뿐더러 이 경우도 '모든 법을 배울 사람에게 알리노니.....' 정도의 의미를 가진 예로 현대국어 직관으로 볼 때 어색한 예라 하겠다.

라. 또한 언급 대상으로 내포절을 취하는 복합문에 나타나는 것이 일  
반적이거나

마. 언급 대상으로 명사구가 실현되는 경우도 드물게 존재한다.

3.2. 이제 ‘-더브리’에 대해서 살펴보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더브리’도 ‘-드려’와 같이 활용형 ‘더브리(더블+-어)’가 문법화하여 형성된 경우로 ‘둘 이상의 사람이 함께하다’ 정도의 의미를 가졌지만 조사로 쓰일 때는 ‘-에게’ 정도의 처격 조사로 해석된다. 그럼 먼저 조사 ‘-더브리’가 통합하는 선행 체언의 의미 자질부터 살펴보자. 그런데 이 ‘-더브리’도 선행 체언이 [+사람, -존칭]의 경우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예를 검토해 보자.

(22) 가. 須達이 舍利弗더브리 무로디 世尊이 흐르 몇 리를 녀시느니잇고  
對答호디<釋詳6:23a>

나. 부테 羅刹女들더브리 니르샤터 도타 도타 너희들히 法華 일홈 바  
다 디녕 사르물 擁護홀만 흐야도 福이 그지 업스리어니<釋詳  
21:31b>

다. 일 흐는 사름들더브리 닐오디 너희 브즈러니 흐야 게으르디 말라  
흐야<月釋13:22a>

라. 弘이 지비 도라오나닐 그 겨지비 마조 弘더브리 닐오디 아자비  
쇼를 소아 주기이다 弘이 듣고 황당히 너겨 묻논 배 업서 곧 對答  
호디<內訓3:45a>

마. 怡然히 아비 버들 恭敬흐야 날더브리 무로디 어느 짜호로서 온다  
흐는다<杜詩19:43a>

‘-더브리’가 통합하는 선행 체언인 처격어는 [+사람]이어야 하며 의미 해석상 처격어가 주어보다 존칭이어서도 안 된다. 만약 처격어가 주어보다 존칭으로 해석된다면 처격어에 ‘-스기’가 통합하여 나타날 것이다. 또한 ‘-

더브러'가 '습-'와 호응을 보이지 않는 것도 '-더브러'가 비존칭의 처격어와 통합하는 것을 방증한다.

마지막으로 '-더브러'의 경우도 인칭과 관련하여서 예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23) 가. 이웃 지비 고기와 자래와 보내야셔 날더브러 즈조 能히 올다 문는다  
 다<杜詩10:14b>

나. 怡然히 아비 버들 恭敬 訶야 날더브러 무로디 어느 짜호로서 온다  
 흐는다<杜詩19:43a>

다. 그 𩑦 世尊이 쯤 比丘衆드려 니르샤디 내 이제 너더브러 니르노니  
 <月釋13:67b>

(23 가, 나)는 선행 체언이 1인칭 대명사 '나'의 경우이고, (23 다)는 2인칭 대명사 '너'인 경우이다. 이처럼 '-더브러'의 경우도 선행 체언의 인칭에는 크게 제약을 보이지 않는 듯하나 '-드려'에 비하면 그 예가 적다.

이상으로 선행 체언에 대한 '-더브러'의 통합 환경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24) 선행 체언에 대한 '-더브러'의 통합 환경

가. 선행 체언이 처격어이면서

나. 선행 체언의 의미 자질이 [+사람, -존칭]일 경우에 통합한다.

다. 선행 체언의 인칭과 관련 없이 통합하여 나타나나 '-드려'에 비해 빈도수가 낮다.

다음으로 '-더브러'의 후행 서술어와 관련하여 문장 구성을 살펴보자. '-더브러'도 주로 '니르-'나 '묻-'와 같은 화법 동사와 통합하며 아래 (25)의 예들처럼 'NP이 NP더브러 닐오디(니르샤디)/니르노니 S' 혹은 'NP이 NP

더브러 무로디(무르사디)/문노니 S' 정도로 나타난다.

- (25) 가. 부테 羅刹女들더브러 니르사디 도타 도타 너희들히 法華 일홈 바  
다 디닐 사르물 擁護 홀만 ㅎ야도 福이 그지 업스리어니<釋詳  
21:31b>  
나. 일 ㅎ는 사름들더브러 닐오디 너희 브즈러니 ㅎ야 게으르디 말라  
ㅎ야<月釋13:22a>  
다. 그 ㅅ 世尊이 ㅅ 比丘衆드려 니르사디 내 이제 너더브러 니르노니  
<月釋13:67b>  
라. 德武 | 裴氏더브러 닐오디 내 도라 올 理 업고 그디 당다이 다른  
지비 가리로소니 이어기 기리 여희노라<三綱런던烈14>  
마. 이웃 지비 고기와 자래와 보내야셔 날더브러 즈조 能히 올다 문는  
다<杜詩10:14b>

위 (25)에서와 같은 구성은 조사 ‘-더브러’가 주로 나타나는 유형이다. 이는 ‘-드려’와도 유사한 모습이라 하겠다. 그런데 ‘-더브러’는 “王이 깃그샤 이튿나래 姬의 말로 虞丘子더브러 니르신대 丘子 | 돛굴 避 ㅎ야 對答 홀 바를 아디 문 ㅎ니라”<內訓2:21b>과 “黃閣엿 늘근 사름더브러 일마다 무르면 엇데 白登에 ㅼ리요물 헤아리리오”<杜詩24:49b>, “놀더브러 무리사 ㅎ리며 ㅼ사 能히 對答 ㅎ려노 ㅎ시고”<釋詳13:15a>처럼 접속어미 ‘-ㄴ덴’과 ‘-(으)면’, ‘-(으)며’가 이끄는 접속절에도 나타난 예가 더러 확인된다. ‘-드려’와 ‘-더브러’가 매우 유사한 분포 환경을 보이지만 이처럼 미세한 차이가 두 형태의 차이를 보여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사 ‘-더브러’의 예가 그리 많지 않아 통사적 특성을 살펴보는 데에 어려움이 있지만 확인된 예를 통해서 ‘-더브러’가 나타난 구성을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겠다.

- (26) 가. 이웃 지비 고기와 자래와 보내아서 날더브러 즈조 能히 올다 문는  
다<杜詩10:14b>
- 나. 주산 글위를 父老더브러 자랑호고 獻壽호는 술로 城隍을 이바드  
리로다<杜詩23:25a>
- 다. 藥 너흔 노므츠란 道士를 親近히 호고 前劫엿 지란 되 중더브러  
문노라<杜詩20:24a>
- 라. 桃源人 나그내더브러 말스물 傳호라 사르미 이제 出處 | 곤호라  
<杜詩8:61a>
- 마. 사를 일 다스료물 어느 俗을 免호리오 方法을 피헛 거집더브러  
알외노라<杜詩22:21a>

위 (26 가)는 ‘NP더브러 S 문-’ 구성으로 인용절이 삽입된 구성이고, (26 나, 다)는 각각 ‘NP를 NP더브러 자랑호-’ 구성과 ‘NP란 NP더브러 문-’ 구성으로 목적어 NP가 관형사절에 수식을 받는 경우이다. (26 라)는 ‘NP더브러 NP를 傳하-’ 구성으로 목적어 NP가 명사구로 실현된 경우이다. (26 마)도 ‘NP를 NP더브러 알외-’ 구성으로 NP가 명사구로 실현된 경우이다. 이처럼 ‘-더브러’가 나타난 구성도 목적어가 되는 성분이 인용절로 나타나기도 하고 명사구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데 위 (26)에서 보다 주목되는 점은 ‘-더브러’가 통합한 구성은 ‘자랑호-’, ‘傳호-’, ‘알외-’, ‘勸호-’ 등의 다양한 서술어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물론 ‘자랑호-’, ‘傳호-’, ‘알외-’, ‘勸호-’도 ‘니르-’와 ‘문-’와 같이 ‘말하다’류에 포함되는 동사이기는 하지만 보다 다양한 서술어에 통합하여 나타난다는 점은 ‘-드려’ 구성에서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주목을 끈다.

이상으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더브러’의 통사적 특성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27) ‘-더브리’의 통사적 특성

- 가. 선행 체언이 [+사람, -존칭]인 경우에 한하여
- 나. ‘니르-’, ‘묻-’ 등의 ‘말하다’류가 쓰인 처격어에 통합하되
- 다. 선행 체언의 인칭에는 크게 제약을 보이지 않는다.
- 라. 또한 언급 대상으로 인용절을 취하기도 하며 명사구가 나타나기도 한다.

3.3. 이제 ‘-인/스손디’에 대해서 살펴보자. ‘-인/스손디’의 경우도 먼저 선행 체언의 의미 자질부터 살펴보기로 하겠다.

- (28) 가. 王이 7장 두리여 沙門의손디 사름 브려 니른대<釋詳24:22a>  
 나. 阿彌陀佛이 比丘들과 券屬이 圍繞호스바 金色光을 펴샤 그 사르  
 미손디 오샤 苦空無常無我를 너퍼 니르시고 出家호야 受苦 여회  
 논 주를 讚嘆호시리니<月釋8:55b>  
 다. 王이 導師의손디 가샤 니르사디<月釋22:35b>  
 라. 益利를 몬져 보내야 어미손디 날오디<月釋23:73b>  
 마. 妃 道人스손디 무로디 이에 理 비환디 몇 히잇고 <月釋20:74a>  
 바. 네 내 法蠡 가져 더 比丘스손디 가 佛興世曲을 불라 호야늘<月釋  
 25:53b>

위 (28)에서 ‘-인/스손디’ 역시 선행 체언이 [+사람]에게 통합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검토한 ‘-드려’, ‘-더브리’와 달리 ‘-인/스손디’는 선행 체언의 존칭일 때는 ‘-스손디’가, 선행 체언이 비존칭일 때는 ‘-인손디’가 통합한다. 이 교체는 속격 교체와 동일하다.

한편, “善友太子스 어마니미 그 그려미손디 가샤 니르사디”<月釋22:61a>에서 ‘-인/스손디’는 [-사람]에 통합하는 경우인 듯하다. 선행 체언인 ‘기러기’에 통합하여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문장은 선우태자의 어머니가 태자의 기별을 몰라 걱정하며 기러기에게 말하는 장면으로 이 장

면에서 ‘기러기’는 단순히 동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의인화된 대상으로 해석된다. 선우 태자 어머니의 말에 기러기가 “그 그러기 이 말 듣좁고 슬피 우러 헛돌오 늣물 흘려 술보더 夫人하 나를 브려 太子를 언과더 험시면 命을 거스릅디 아니호리이다” <月釋22:62a>와 같이 말하는 장면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때 기러기는 의인화된 대상으로 [+사람]의 자질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칭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29) 가. 世尊이 그 바리로 麴酪蜜搏을 바다 좌시고 흥정바지드려 니르샤 디 너희들히 내손디 佛法僧에 歸依함과 다섯 가지 警戒를 비호면 <月釋4:58b>

나. 釋迦如來 그 백 菩薩人 道理 호노라 호야 네손디 五百 銀 도노로 다섯 줄깃 蓮花를 사야 錠光佛의 받즈볼 찌끼 <釋詳6:8a>

위 (29 가)는 ‘너희들이 나에게 佛法僧에 歸依함과 다섯 가지 警戒를 배우면’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예로 ‘-손디’가 1인칭 체언에 통합한 경우이고, (29 나)는 ‘너에게 오백 은 돈으로 다섯 줄기의 연꽃을 사서’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예로 2인칭 체언에 통합한 경우이다. 이처럼 ‘-이/스손디’가 1인칭과 2인칭 체언에 통합하는 경우가 확인되기는 하나 극히 드물고 ‘말하다’류 동사의 처격어가 1인칭이나 2인칭일 때 나타나는 예는 하나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앞서 검토한 ‘-드려’, ‘-더브러’와 다른 점이며 ‘-이/스손디’가 가지는 제약이라 할 수 있겠다.

(30) 선행 체언에 대한 ‘-이/스손디’의 통합 환경

가. 선행 체언이 처격어이면서

나. 선행 체언의 의미 자질이 [+사람]일 경우에 통합한다.

다. ‘-이손디’와 ‘-스손디’의 교체는 속격 조사의 체계와 동일하다.

라. 선행 체언이 1인칭 혹은 2인칭인 경우에는 서술어에 따라 제약이 따른다.

이제 다음으로 ‘-이/스손디’의 후행 서술어와 관련하여 문장 구성을 살펴보자. ‘-이/스손디’는 앞서 살펴본 ‘-드려’와 ‘-더브러’보다 서술어와의 통합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듯하다. ‘-이/스손디’가 ‘-드려’, ‘-더브러’와 달리 ‘말하다류’류 외에 ‘가’, ‘오-’, ‘보내-’ 등의 서술어와도 통합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럼, 아래 예를 살펴보자.

(31) 가. 益利를 몬져 보내야 어피손디 닐오디 어마니미 善事를 ㅎ시단디  
면 내 이 도늘 가져가 어마니물 供養호습고 ㅎ다가 모딘 業을 지스  
시단디면 내 이 도느로 어마님 爲호야 布施호리이다 ㅎ야늘<月釋  
23:73b>

나. 王이 ㄹ장 두리여 沙門의손디 사롬 브려 니른대<釋詳24:22a>  
다. 安樂國이 바미 逃亡호야 들다가 그짓 쏘 뷘 죠올 맞나니 자바 구  
지조디 네 엇데 항것 背叛호야 가는다 호고 스츠로 두소늘 미야  
와 長者 | 손디 닐어늘<月釋8:98b>

위 (31 가)는 ‘어피손디 닐오디 S 호야’ 구성으로 ‘어머니에게 말하되(말하기를)’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 (31 나)는 ‘沙門의손디 니른대 S 호고’ 구성으로 沙門에게 말한대(말하기를)’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31 다)는 ‘長者에게 말하거늘(말하기를)’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 즉 위 구성에서 ‘-이손디’는 ‘말하다류’의 처격어 성분에 통합한 구성인 것이다.

그런데 ‘-이/스손디’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닐-’와 같은 ‘말하다류’ 동사 외에 ‘가’, ‘오-’, ‘보내-’, ‘듣-’, ‘사’ 등의 동사와 어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32) 가. 外道 | 띄여 ㄱㄹ니 놀카뵐 갈호로 衣葉中에 너허 王손디 흔뻬  
 가 外道 | 닐오디 沙門釋子 | 놀카뵐 갈홀 가져 王을 害호려 ㅎ느  
 이다 ㅎ고<月釋25:23a>
- 나. 阿彌陁佛이 比丘들과 券屬이 圍繞 ㅎ스바 金色光을 펴샤 그 ㅅㄹ  
 ㅅ손디 오샤<月釋8:55b>
- 다. ㅁ초아 흥정바지 舍衛國으로 가리 있더니 婆羅門이 글알호야 須  
 達의손디 보내야닐 須達이 깃거 波斯匿王의 가아<釋詳6:15b>
- 라. ㅁ은 모든 ㅁ즈미손디 드로니<內訓2:27a>
- 마. 釋迦如來 그 ㅁ 菩薩入 道理 ㅎ노라 ㅎ야 內손디 五百 銀 도노로  
 다섯 줄깃 蓮花를 사아<釋詳6:8a>

위 (32 가)는 ‘왕에게 함께 가서 外道가 (왕에게) 말하되’ 정도의 의미이고, (32 나)는 ‘(阿彌陁佛이)그 사람에게 오시어’ 정도의 의미이다. (32 다)는 ‘婆羅門이 편지하여 須達에게 보내거늘’ 정도의 의미이고, (32 라)는 ‘ㅁ이 모든 ㅁ주머니에게 들었는데’ 정도의 의미이다. (32 마)는 공중에서 化人이 耶輸에게 말하는 장면으로 ‘釋迦如來가 그 때에 菩薩의 道理를 ㄲ느라고 너에게 오백 은 돈으로 다섯 줄기의 연꽃을 사서’ 정도의 의미로 이때 ‘너에게’는 동사 ‘사-’와 관련된다. 여기에서 ‘-이/스손디’는 처격 조사로서 선행 체언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스손디’가 화법 동사 외에 다른 동사와 어울려 사용되는 것은 앞서 살펴본 ‘-더러’, ‘-더브러’에서 볼 수 없고, 오히려 ‘-이게’나 ‘-스기’와 유사한 환경을 보이는 점에서 ‘-더러’, ‘-더브러’와 구별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스손디’의 통사적 특성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33) ‘-이/스손디’의 통사적 특성

- 가. 선행 체언이 [±사람(±존칭)]인 경우에 한하여

- 나. ‘닐(니르-)-’와 같은 ‘말하다’류 동사 외에 ‘가’, ‘오-’, ‘사’ 등의 동사의 처격어에 통합하되
- 다. 선행체언이 1인칭이거나 2인칭인 경우에는 서술어에 따라 제약이 따른다.

#### 4. ‘-드려’, ‘-더브러’, ‘-이/스손더’의 처격 표시 체계

이 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유정물에 통합하여 나타나는 처격 조사에 대해서 그 분포 환경을 종합하고 그 관계를 명시적으로 나타내고자 한다.

중세국어 처격 범주에 대해서 안병희·이광호(1990)은 처(소)격 조사와 여격 조사로 구분하여 ‘주다’ 동사류나 ‘말하다’ 동사류 등에 나타나는 유정물 처격 성분에 통합하는 형태를 여격 조사로 하였다. 필자도 이와 같은 생각이다. 그런데 문제는 중세국어 문법에서 유정물 처격어에 통합하는 문법 범주를 인정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어의 경우에 문법적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는 대개 형태 구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유정물 처격어에 주로 통합하여 나타나는 ‘-이게’, ‘-스기’가 ‘-이/스 # 게/기’의 통사 구성을 취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때문에 여격 조사를 조사 체계 안에 설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본고의 논의에 따르면 이 시기에 ‘-드려’, ‘-더브러’, ‘-이/스손더’가 주로 ‘말하다’류 동사 구문의 유정물 처격어에 통합하여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형태로 쓰이기 때문에 중세국어 처격 조사 체계에서 여격 조사를 설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드려’, ‘-더브러’, ‘-이/스손더’가 유정물 처격 성분에만 통합하는 제약과, 무엇보다도 ‘말하다’류 서술어에 나타나는 제약, 그리고 이 세 형태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 차이가 없다는 사실, 이러한 내용을 미루

어 볼 때 이 세 형태를 처격 체계 안에서 다루되 여격 조사(내지 여격 표지)로 구분하여야 하는 것이 최선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시기에 유정물 처격어에는 통사 구성인 '-익계', '-스기'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 통합 양상이다. 따라서 처격 범주를 설정할 때 '-익계', '-스기'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에는 물론이다. 이에 본고는 유정물 처격어에 통합하는 처격 조사 체계를 형태 구성의 형식과 통사 구성의 형식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도식화 하면 아래와 같다.

〈중세국어 유정물 처격 표시의 언어 형식〉

처격 표시의 구분 (유정물 처격어)	언어 형식	분포 환경	
		선행 체언	후행 서술어
형태 구성의 형식	'-드려'	[+유정, -존칭]	'말하다'류 서술어
	'-더브러'	[+유정, -존칭]	'말하다'류 서술어
	'-익/스손디'	[+유정, ±존칭]	'말하다'류 서술어 외 이동동사
통사 구성의 형식	'-익계', '-스기'	[+유정, ±존칭]	제약 없음.

위 사실을 통해서 중세국어 시기에 유정물 처격어에 통합하는 언어 형식이 아직 완전한 문법 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형태 구성의 형식과 통사 구성의 형식이 모두 처격어에 통합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완전한 문법 체계는 '-익계', '-스기'가 완전한 조사로 변화하면서 형태 구성의 형식만이 이 범주를 이루게 되어 다소 불완전한 체계가 해소되는 듯하다.

그러나 동일한 의미 범주 안에 둘 이상의 형태가 일정한 교체 환경을 이루지 못하고 존재하는 것은 여전히 불완전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 이상의 형태가 음운론적 조건이든 형태론적 조건이든 일정한

조건 하에 교체를 이룬다면 완전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게’, ‘-스기’와 ‘-드려’, ‘-더브러’, ‘-이/스손디’는 그렇지 못하다. 단지 선행 체언의 인칭과 후행 서술어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긴 하나 상보적 분포를 보인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비단 중세국어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다. 현대국어에서 유정물 처격어에 통합하는 ‘-에게’, ‘-께’, ‘-한테’, ‘-더러’, ‘-보고’ 또한 일정한 교체를 보이지 않는다. 물론 선행 연구에서 이 조사들의 분포가 어느 정도 정리된 바 있지만 이 조사들의 관계를 명쾌하게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불완전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 유정물 처격어가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 5. 결론

중세국어에서 ‘-드려’, ‘-더브러’, ‘-이/스손디’가 처격어에만 통합하여 나타난다는 점에서 유사한데 그동안의 연구에서 ‘-드려’에 비해 처격 표시 형태로서 ‘-더브러’와 ‘-이/스손디’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이에 본고는 이 세 어형이 유정물 처격어에 통합하는 동일한 분포 특성과 서술어의 제약, 생략이나 교체 시에 의미 차이가 없는 사실 등을 토대로 이 세 어형이 처격 조사의 기능을 담당하는 형태임을 지적하면서 이 세 형태가 문법화를 거쳐 형성된 구성임을 지적하였다. 그 과정에서 문법화의 중간 단계에 속하는 예를 확인하여 동시대에 문법화의 전 단계, 중간 단계, 최종 단계의 형식이 존재하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어서 조사 ‘-드려’, ‘-더브러’, ‘-이/스손디’의 통사적 특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드려’의 통사적 특성

- 가. 선행 체언이 [+사람, -존칭]인 경우에 한하여
- 나. ‘니르-’, ‘묻-’ 등의 ‘말하다’류가 쓰인 처격어에 통합하되<sup>15)</sup>
- 다. 선행 체언의 인칭에는 크게 제약을 보이지 않는다.
- 라. 또한 언급 대상으로 내포절을 취하는 복합문에 나타나는 것이 일 반적이거나
- 마. 언급 대상이 명사구로 실현되는 경우도 드물게 존재한다.

(2) ‘-더브러’의 통사적 특성

- 가. 선행 체언이 [+사람, -존칭]인 경우에 한하여
- 나. ‘니르-’, ‘묻-’ 등의 ‘말하다’류가 쓰인 처격어에 통합하되
- 다. 선행 체언의 인칭에는 크게 제약을 보이지 않는다.
- 라. 또한 언급 대상으로 인용절을 취하기도 하며 명사구가 나타나기도 한다.

(3) ‘-이/스손디’의 통사적 특성

- 가. 선행 체언이 [±사람(±존칭)]인 경우에 한하여
- 나. ‘닐(니르-)’와 같은 ‘말하다’류 동사 외에 ‘가-’, ‘오-’, ‘사-’ 등의 동사의 처격어에 통합하되
- 다. 선행체언이 1인칭이거나 2인칭인 경우에는 서술어에 따라 제약이 따른다.

마지막으로 유정물 처격 범주의 체계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해당 표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15) ‘-드려’가 ‘니르-’, ‘묻-’ 외에 ‘알외-’ 구문에 쓰이는 경우가 확인된다. “모든 道 비홀 사람드려 알외노니 힘때 모더 用意호고 大乘門에 도르혀 生死智를 잡디 말라” <육조 下57b-8>처럼 ‘알외-’(알리다)가 서술어인 구성에 ‘-드려’가 쓰인 예가 있다. 그러나 그 예도 적을뿐더러 이 경우도 ‘모든 법을 배울 사람에게 알리노니.....’ 정도의 의미를 가진 예로 현대국어 직관으로 볼 때 어색한 예라 하겠다.

## 〈중세국어 유정물 처격 표시의 언어 형식〉

처격 표시의 구분 (유정물 처격어)	언어 형식	분포 환경	
		선행 체언	후행 서술어
형태 구성의 형식	‘-드려’	[+유정, -존칭]	‘말하다’류 서술어
	‘-더브러’	[+유정, -존칭]	‘말하다’류 서술어
	‘-이/스손디’	[+유정, ±존칭]	‘말하다’류 서술어 외 이동동사
통사 구성의 형식	‘-이게’, ‘-스기’	[+유정, ±존칭]	제약 없음

## 【참고문헌】

- 고영근(1987), 『보충법과 불완전계열의 문제』, 『어학연구』 23:3, 505-525.[고영근 (1989)에 재수록]
- 고영근(1989), 『국어형태론연구』, 서울대출판부.
- 김진영(1995), 『중세국어 보조사에 대한 연구-목록 설정을 중심으로-』, 『국어연구』 136.
- 남윤진(2000), 『현대국어의 조사에 대한 계량언어학적 연구』, 태학사.
- 박미영(2007), 『근대국어 특수조사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 배주채(2009), 『‘달라, 다오’의 어휘론』, 『국어학』 56, 191-220.
- 서종학(1983), 『15세기 국어의 후치사 연구』, 『국어연구』 53.
- 안병희·이광호(1990/2001),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 이근용(2006), 『조사 ‘에게, 한테, 더러, 보고’의 통사적 특성』, 『어문학논총』 25, 125-137.
- 이남순(1986), 『‘에게’의 대응형태 ‘한테, 더러, 보고’의 문법』, 『진단학보』 61, 153-172.
- 이남순(1998), 『‘격조사’』, 『문법 연구와 자료』, 태학사, 83-113.
- 이승욱(1973), 『국어문법체계의 사적연구』, 일조각.
- 이승욱(2007), 『중세어 통사구조의 문법화에 대한 산고-여격형성의 초기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어연구』, 역락, 63-94.
- 이승녕(1981), 『중세국어문법』, 을유문화사.
- 이익섭·임홍빈(1983), 『국어문법론』, 학연사.
- 이정훈(2004), 『국어의 문법형식과 통사구조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 이현희(1994), 『중세국어구문연구』, 신국문화사.
- 임동훈(2004), 『한국어 조사의 하위 부류와 결합 유형』, 『국어학』 43, 119-154.
- 채 완(1977), 『현대국어 특수조사의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_\_\_\_\_(1990), 『특수조사』,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263-270.
- \_\_\_\_\_(1993), 『특수조사 목록의 재검토』, 『국어학』 23, 69-92.
- 최현배(1937/1971),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하귀녀(2005), 『국어 보조사의 역사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홍윤표(1983), 『근대국어의 ‘-로 더러’와 ‘-로 더브러’에 대하여』, 『국어학연구』(백영 정병욱선생회갑기념논총).

황화상(2004), 『조사의 작용역과 조사 중첩』, 『국어학』 42, 115-140.

Brian D. Joseph and Richard D. Janda(2003), *The Handbook of Historical Linguistics*, Oxford: Blackwell.

Abstract

Grammatical property of Locative Case Marker  
‘-더러’, ‘-더브러’, ‘-익/스손디’ in Middle Korean

Jang, Yo-Ha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morphological and syntactic properties of ‘-더러’, ‘-더브러’, ‘-익/스손디’ in Middle Korean. In chapter 2, I examined distributions and meanings of Korean particles(‘Josa’) ‘-더러’, ‘-더브러’, ‘-익/스손디’ in Middle Korean. In Middle Korean, Josa ‘-더러’, ‘-더브러’, ‘-익/스손디’ only appears behind locative(dative) Noun Phrase. therefore I regarded Josa ‘-더러’, ‘-더브러’, ‘-익/스손디’ as a locative case markers. In chapter 3, I examined the syntactic properties of sentences in which ‘-더러’, ‘-더브러’, ‘-익/스손디’ are used. In result, I showed similar properties of ‘-더러’, ‘-더브러’, ‘-익/스손디’. Finally, After considering all the factors(morphological, syntactic properties), I examined the system of locative case.

key-words : Middle Korean, locative case maker, dative case maker,  
grammaticalization, morphological construction, syntactic  
construction

장요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Post-Doc

주소 : (150-905)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 1동 759-13번지 3층

전화번호 : 010-4250-7554

전자우편 : john0504@daum.net

이 논문은 2010년 4월 30일 투고되어  
2010년 6월 1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0년 6월 17일 게재 확정됨.